

국제통화기금, 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 2025년 10월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세계 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인플레이션, 교역 전망 등을 발표함.

- IMF는 회원국의 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거시적 흐름, 국가별 성장률 전망, 통화·재정정책 평가, 무역·물가·금리 등의 주요 지표를 종합 분석하여 분기별로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함.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主) 전망이며, 1월·7월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30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정 전망임.
-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5년 세계 경제가 상반기 예상보다 견조했으나, 이는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관세 인상 전 선(先)투자와 재고 비축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결과로 진단함. 이에 따라, 하반기 들어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시장 완화와 관세의 소비자 가격 전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함.
- 물가상승률은 글로벌 평균 2025년 4.2%, 2026년 3.7%로 둔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의 목표(2%)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아시아 주요국(중국·인도·태국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물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또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노동공급 제약, 재정취약성 및 금융시장 불안 등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지적하였으며, 특히 AI 투자 둔화, 기술주 조정,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단기 금융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함.
- 세계 교역량은 2025~2026년 평균 2.9% 증가에 그칠 전망이며, 2024년(3.5%)보다 낮은 수준임.

●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4년 3.3%에서 2025년 3.2%, 2026년 3.1%로 완만하게 둔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는 7월 수정 전망 대비 소폭 상향 조정된 수치임.

- 선진국의 성장률은 2025~2026년 평균 1.5% 내외,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은 4.0%대 초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미국: 2025년 성장률 2.0%, 인플레이션 2.7%로 전망. 관세 인상에 따른 성장 둔화와 완만한 디스인플레이션 지속
- 중국: 2025년 성장률은 4.8%로 전망되며, 수출 회복과 재정 확대가 주요 성장 동력
- 유로존: 2025년 성장률은 1.2% 수준으로 전망되며, 무역 제약과 불확실성 지속 속에서 공공투자 증가가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일본: 2025년 성장률 전망치는 1.1%로, 민간소비 부진에도 엔화 약세와 수출 회복이 보완요인으로 작용

2025년 IMF 주요국 경제 성장률 전망

구분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				7월 대비 10월 조정치 변화(%p)
	1월 발표	4월 발표	7월 발표	10월 발표	
미국	2.7	1.8	1.9	2.0	0.1
유로존	1.0	0.8	1.0	1.2	0.2
일본	1.1	0.6	0.7	1.1	0.1
한국*	2.0	1.0	0.8	0.9	0.1
중국	4.6	4.0	4.8	4.8	0.0

*보고서 본문에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미포함

출처: IMF('25.10.14)

세계 경제 동향

● 중국 9월 소비자물가(CPI) 0.3% 하락 | 2025-10-15 중국국가통계국(CPI, PPI); 조선비즈

- 2025년 10월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5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가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도시 -0.2%, 농촌 -0.5%)했다고 발표함.
 -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도시 0.0%, 농촌 0.2% 상승)
- (품목별 전년 동월 대비) 식품·담배·주류 부문이 2.6% 하락하며 전체 CPI를 약 0.74%p 낮춤.
 - 신선채소(-13.7%), 달걀(-11.9%), 육류(-8.4%), 신선과일(-4.2%) 등이 하락함.
 - 반면, 수산물(0.9%)과 의류(1.7%), 생활용품·서비스(2.2%), 의료(1.1%), 교육·문화·오락(0.8%) 등은 상승
- 9월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PPI)는 전년 동월 대비 2.3% 하락(전월 대비 0.0%)하며, 36개월 연속 하락 국면을 이어감.
 - 세부적으로 생산재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4% 하락하여 전체 생산자물가 하락에 약 1.8%p 기여하였으며, 광업(-9.0%), 원재료(-2.9%), 가공산업(-1.7%)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하락이 지속됨.
 - 소비자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7% 하락하여 전체 생산자물가를 약 0.45%p 감소시켰으며, 식품(-1.7%), 의류(-0.3%), 내구소비재(-3.9%) 등의 산업에서 하락이 나타남.
- 중국의 소비자·생산자 물가가 동시에 하락하며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 내수 회복 부진과 공급과잉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며, 경기 둔화 우려가 일부 존재함. 다만, 중국 정부는 최근 수출 회복과 재정 확대에 따라 완만한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2024~25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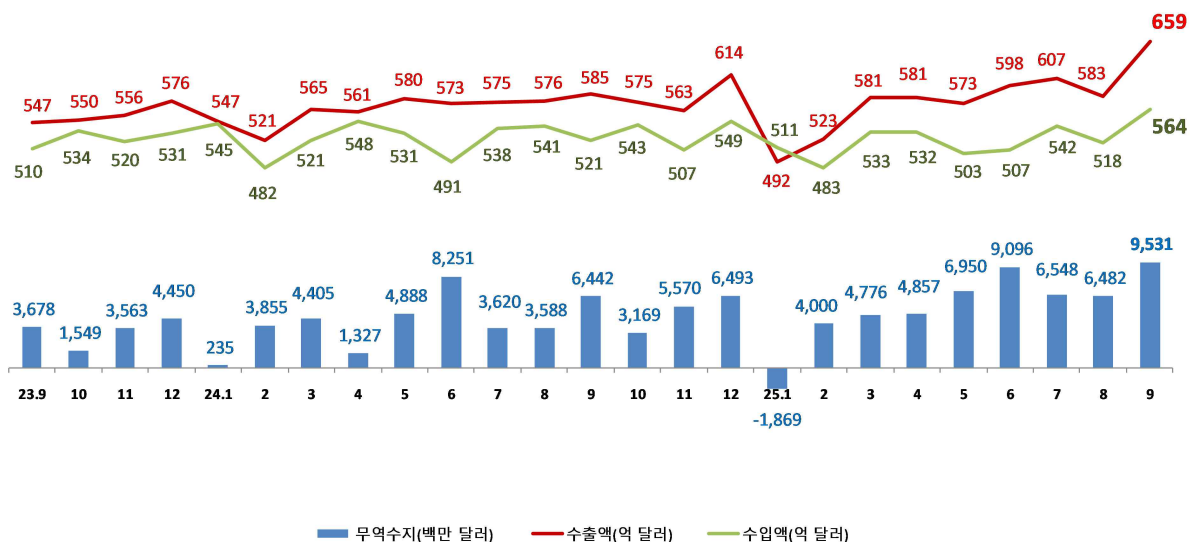


국내 경제 동향

● 9월 무역수지 95.3억 달러 흑자 ■ 2025-10-15 관세청

- 2025년 10월 15일 관세청은 「2025년 9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을 발표하였음.
 -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6% 증가한 659억 달러, 수입은 8.2% 증가한 56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5.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이는 8개월 연속 흑자이며, 9월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함.
- (수출) 반도체(전년 동월 대비 22.1%), 승용차(14.0%), 선박(23.8%), 무선통신기기(5.3%), 석유제품(4.0%) 등이 증가하여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
 - 반도체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고, 승용차 수출도 3개월 연속 증가함.
 - 주요 지역별로는 중국(전년 동월 대비 0.4%), 유럽연합(19.3%), 베트남(19.1%), 대만(40.0%), 중동(17.9%), 일본(3.2%)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미국(-1.4%), 호주(-4.6%)로의 수출은 감소함.
- (수입) 전년 동월 대비 8.2% 증가한 564억 달러를 기록함.
 - 자본재(전년 동월 대비 12.2%), 기계류(17.1%), 정밀기기(17.8%), 무선통신기기(27.1%) 등은 증가함. 원자재 수입은 0.4%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원유 수입단가가 9월 평균 배럴당 73.4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9% 하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는 중국(전년 동월 대비 20.4%), 유럽연합(13.4%), 미국(8.7%), 일본(4.4%), 베트남(17.1%) 등에서 수입이 증가함. 반면, 중동(-10.8%), 대만(-2.8%)에서의 수입은 감소
- (무역수지) 9월 무역수지는 95.3억 달러 흑자로 전월(64.8억 달러) 대비 흑자폭이 확대됨.

■ 월별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추이 ■



세계 농업·농정 동향

● 일본 2024년도 식량자급률 발표 | 2025-10-10 농림수산성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4년 식량자급률을 열량 기준 38%, 생산액 기준 64%, 섭취 열량 기준 46%로 발표함.
 - 열량 기준 식량자급률: (1인 1일당 일본 국산 공급 열량) ÷ (1인 1일당 총 공급[일본 국산 + 수입산] 열량)
 - 생산액 기준 식량자급률: (식량의 일본 국내 생산액) ÷ (식량의 일본 국내 최종소비액)
 - 섭취 열량 기준 식량자급률: (1인 1일당 일본 국산 공급 열량) ÷ (국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준 섭취 열량 [=1,850kcal])으로 산출되며, 2025년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에 따라 새롭게 설정된 자급률 지표
- 2024년 열량 기준 식량자급률은 38%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생산액 기준 식량자급률은 64%로 전년 대비 3%p 상승함.
 - 2024년 열량 기준 식량자급률은 일본산 쌀 소비와 사탕무·사탕수수 생산 증가가 긍정적 요인이었으나, 밀·대두·채소·수산물 생산 감소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전체 수준 유지
 - 2024년 생산액 기준 자급률은 쌀, 채소, 축산물의 일본 국내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액 증가로 전년 대비 3%p 상승
-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식량 공급은 일본산 외에 미국산, 중국산, 호주산 등으로 구성됨.
 - 식량 공급 열량 기준으로는 일본산(38%) 외에 미국산(23%), 호주산(12%), 캐나다산(8%) 등이 주요 비중 차지
 - 식량 소비액 기준으로는 일본산(64%) 외에 미국산(8%), 중국산(4%), 호주산(3%) 등이 주요 비중 차지
- 한국의 식량자급률(사료용을 제외한 식용 곡물 자급률)은 2023년 49.0%로, 정부는 2030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 이상으로 끌어올려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최근 10년간 일본의 식량자급률 동향 |

단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열량 기준	39	38	38	37	38	37	38	38	38	38
생산액 기준	66	68	66	66	66	67	63	58	61	64

주: 2024년 식량자급률은 추산치

● FAO,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 2025-10-04 농림축산식품부 ; FAO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25년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129.7포인트)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128.8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품목별로는 전월 대비 곡물(-0.6%), 유지류(-0.7%), 유제품(-2.6%), 설탕(-4.1%)이 하락했고, 육류(+0.6%)만 상승함.
 - (곡물 가격) 밀·옥수수의 풍작과 공급 증가로 3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보리와 수수는 상승세
 - (유지류 가격) 팜유·대두유의 약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으며, 해바라기유·유채유는 공급 차질로 상승세 유지
 - (유제품 가격) 전월 대비 버터(-7%), 탈지분유(-4.3%), 전지분유(-3.1%) 등 전반적으로 하락
 - (설탕 가격) 브라질 남부 설탕 생산량 증가, 인도·태국의 양호한 작황 전망으로 하락
 - (육류 가격) 쇠고기·양고기 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이었으며, 돼지고기·가금육 가격은 안정세 유지

■ 세계식량가격지수 품목별 세부 동향 ■

품목	가격 변동	주요 배경 및 요인
곡물	-0.5%	· 밀·옥수수: 북반구 풍작과 수요 둔화, 아르헨티나 수출세 일시 중단으로 하락 · 보리·수수: 공급 제약으로 상승 · 쌀: 인디카종 중심으로 0.5% 하락 (수요 둔화·공급 확대)
유지류	+0.7%	· 팜유: 말레이시아 재고 확대 → 하락 · 대두유: 공급 증가(아르헨티나 수출세 중단) → 하락 · 해바라기유: 흑해 공급 차질 → 상승 · 유채유: 유럽 내 생산 제약 → 상승
육류	+0.6%	· 쇠고기·양고기: 미국 수요 강세 + 오세아니아 수출 제한 → 상승 · 돼지고기: 중국 수입 감소에도 브라질 수요 증가로 안정 · 가금육: 고병원성 AI 발생에도 균형 유지
유제품	-2.6%	· 버터: -7.0% (전월 대비) → 북반구 수요 감소, 생산 확대 기대 · 탈지분유: -4.3% (전월 대비) → 수입 부진 · 전지분유: -3.1% (전월 대비)
설탕	-4.1%	· 브라질 남부 설탕 생산량 확대 · 인도·태국 작황 호조 전망 → 가격 하락

■ 2024년 9월~ 2025년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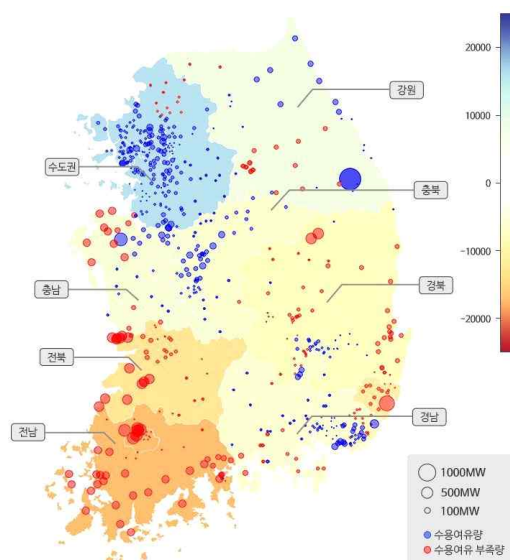


국내 농업·농정 동향

○ 수도권 중심 영농형태양광 시범 조성 추진 | 2025-10-14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 (정책 배경) 농업·농촌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정책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지와 태양광을 병행 활용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 제도를 본격 검토 중임. 특히 수도권은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농업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전력 공급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사업 목적)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면서, 향후 제도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사업 개요) 시범사업은 전력 계통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1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 2개소를 우선 조성할 계획임.
 - 한국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이 제공하는 참여농지를 임차해 설치하며, 조성 이후에는 전담기관이 지정되어 의무영농 이행 여부 및 농작물 수확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함.
 - 발전 수익은 마을공동체에 환원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정부·지자체는 부지 임대, 발전사업 자문 및 관리 등 전반적 지원을 제공함.
- (사업 추진 방식) 이번 사업은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며, 농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하는 모델로 활용될 전망이다.
 - 또한 주민 참여형 수익 공유 구조를 도입해 농촌 공동체 활성화 효과 기대
- (추진 일정) 10월 15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10~11월 후보지 발굴과 마을 구성을 거쳐, 12월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임.

■ 2026~2030년 권역별 전력 계통 수용여유량 ■



자료: 전력거래소 계통수용여유량 전망